

2. 시도 공통 항목

- 2 - 1. 삶에 대한 만족감
- 2 - 2. 의료서비스 만족도
- 2 - 3. 일반인에 대한 신뢰
- 2 - 4. 사회관계별 소통정도
- 2 - 5. 공동체 의식
- 2 - 6. 사회복지서비스 만족도(19세 이상)
- 2 - 7. 가구 월평균 소득
- 2 - 8.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 2 - 9. 안전환경에 대한 평가
- 2 - 10. 환경체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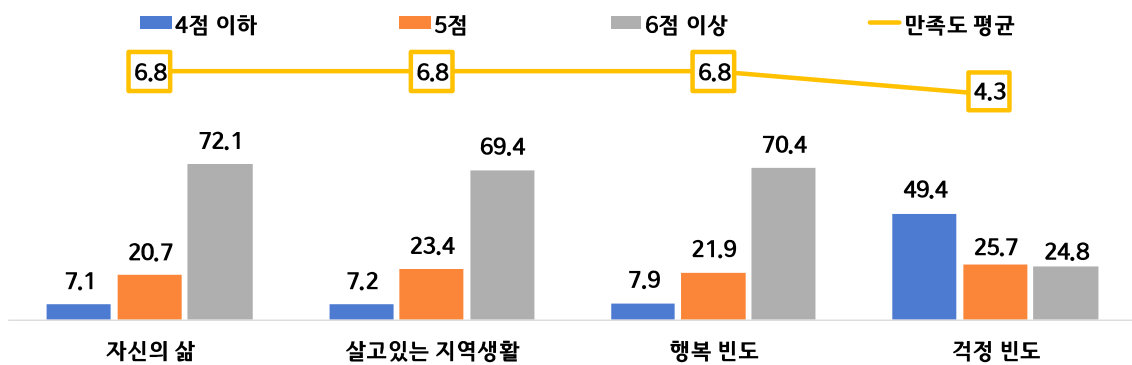
2 - 1. 삶에 대한 만족감

장성 군민들의 높은 행복 빈도

- 2026년 장성 군민 10명 중 7명은 자신의 삶에 만족
 - 자신의 삶에 대해 '대체로 만족(6점 이상)'이라고 응답한 군민은 72.1%로 나타남
 - 살고 있는 지역 생활에 대해 '대체로 만족(6점 이상)'이라고 응답한 군민은 69.4%로 나타남
- 행복 빈도 평균 점수는 6.8점, 걱정 빈도 평균 점수는 4.3점
 - 행복 빈도에 대해 '대체로 행복(6점 이상)'이라고 응답한 군민은 70.4%로 2025년(69.0%) 대비 1.4%p 증가함
 - 걱정 빈도에 대해 '대체로 걱정하지 않음(4점 이하)'이라고 응답한 군민은 49.4%로 2025년(48.8%) 대비 0.6%p 증가함

<< 삶에 대한 만족감 비율 >>

(단위 : 점, %)



삶에 대한 만족감

(단위 : 점, %)

구분	만족도 평균	계												
			0점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1) 자신의 삶														
2026년	6.8	100.0	0.2	0.3	0.8	1.6	4.2	20.7	14.4	18.8	19.7	10.7	8.5	
2025년	7.1	100.0	0.5	0.2	0.1	1.7	3.3	20.7	12.2	17.3	20.0	10.7	13.2	
(2) 살고 있는 지역 생활														
2026년	6.8	100.0	0.1	0.2	1.2	1.3	4.4	23.4	11.8	19.3	20.7	10.0	7.6	
2025년	7.0	100.0	0.3	0.3	0.2	1.4	3.3	22.3	13.8	15.6	19.9	11.0	11.9	
(3) 행복 빈도														
2026년	6.8	100.0	0.2	0.4	1.4	2.5	3.4	21.9	13.0	20.7	18.1	10.9	7.7	
2025년	6.9	100.0	0.2	0.5	0.7	2.1	4.2	23.2	13.2	15.8	17.3	11.2	11.5	
(4) 걱정 빈도														
2026년	4.3	100.0	7.2	5.9	10.2	14.5	11.6	25.7	7.1	7.6	6.1	1.9	2.1	
2025년	4.2	100.0	8.7	8.3	10.1	11.6	10.1	22.9	12.1	7.8	5.5	2.0	0.9	

2 - 2. 의료서비스 만족도

장성군 의료서비스 만족도는 평균 3.8점

· 군민 10명 중 7명은 의료기관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

- 지난 1년 동안 의료기관을 '이용한 적 있다'고 응답한 군민은 68.8%로 나타남
- 의료기관을 가장 많이 이용한 연령대는 65세 이상(91.2%)으로 나타났으며, 60세 이상(88.1%), 50~59세(67.2%), 40~49세(50.8%) 순으로 높게 나타나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이용 비율이 증가함

· 의료서비스 만족도 2024년 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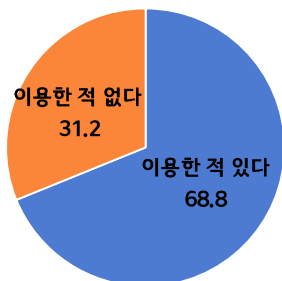
- 의료서비스에 '만족'이라고 응답한 군민은 59.6%로 2024년(46.6%) 대비 13.0%p 증가함
- 의료서비스에 '불만족'이라고 응답한 군민은 5.1%로 2024년(8.8%) 대비 3.7%p 감소함
- 의료서비스 '만족도 평균'은 3.8점으로 2024년(3.6점) 대비 0.2점 증가함

· 의료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대기시간

- 장성 군민이 의료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진료 대기 및 입원 대기 시간'이 22.6%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의료서비스 불만족 이유 상위 4개는 '진료 대기 및 입원 대기 시간'(22.6%), '치료 결과가 미흡하다'(16.3%), '의료비가 비싸다'(15.5%), '전문 의료 인력 부족'(11.0%) 순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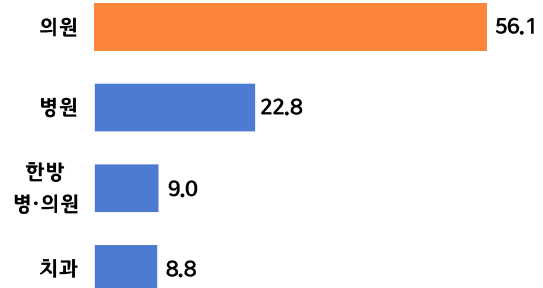
<< 의료기관 이용 비율 >>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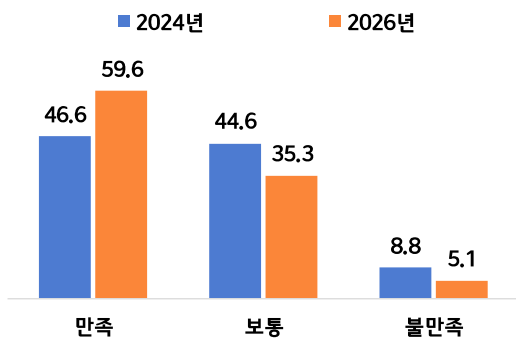
<< 이용 의료기관(상위 4개 항목) >>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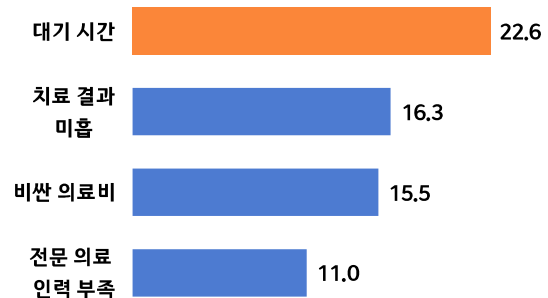
<< 의료서비스 만족도 >>

(단위 : %)



<< 의료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 >>

(단위 : %)



의료서비스 만족도 - (1) 이용 의료기관

(단위 : 회, %)

구 분	월 평균 이용 횟수	계	이용 한적 있다									이용 한적 없다
				소계	병원	의원	치과	한방 병·의원	보건소	약국	기타	
2 0 2 6 년	1.9	100.0	68.8	100.0	22.8	56.1	8.8	9.0	0.6	2.8	0.0	31.2
2 0 2 4 년	2.0	100.0	73.7	100.0	25.5	61.5	5.5	4.8	0.5	1.8	0.2	26.3
〈 연 령 별 〉												
1 5 ~ 2 9 세	1.1	100.0	31.8	100.0	32.3	35.0	32.7	0.0	0.0	0.0	0.0	68.2
3 0 ~ 3 9 세	1.5	100.0	36.6	100.0	15.9	63.0	15.8	0.0	0.0	5.3	0.0	63.4
4 0 ~ 4 9 세	1.5	100.0	50.8	100.0	28.6	58.6	5.2	7.6	0.0	0.0	0.0	49.2
5 0 ~ 5 9 세	1.6	100.0	67.2	100.0	17.3	56.6	14.0	8.3	0.0	3.8	0.0	32.8
6 0 세 이 상	2.2	100.0	88.1	100.0	23.2	57.0	5.2	10.8	0.9	2.9	0.0	11.9
6 5 세 이 상	2.3	100.0	91.2	100.0	24.5	57.2	4.3	11.7	1.0	1.4	0.0	8.8

의료서비스 만족도 - (2) 의료서비스 만족도

(단위 : 점, %)

구 분	만족도 평균	계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약간 만족	매우 만족
2 0 2 6 년	3.8	100.0	5.1	1.1	4.0	35.3	59.6	35.3	24.2
2 0 2 4 년	3.6	100.0	8.8	1.2	7.6	44.6	46.6	26.7	19.9
< 연 령 별 >									
1 5 ~ 2 9 세	3.6	100.0	0.0	0.0	0.0	49.3	50.7	40.5	10.1
3 0 ~ 3 9 세	3.5	100.0	12.4	0.0	12.4	31.0	56.6	50.7	6.0
4 0 ~ 4 9 세	3.5	100.0	4.6	1.5	3.1	56.3	39.1	17.4	21.7
5 0 ~ 5 9 세	3.7	100.0	9.0	1.9	7.1	36.2	54.8	31.3	23.5
6 0 세 이 상	3.9	100.0	4.1	1.0	3.0	31.3	64.7	37.4	27.3
6 5 세 이 상	3.9	100.0	2.7	0.9	1.8	31.5	65.8	37.9	27.9

의료서비스 만족도 - (3) 불만족 이유 (다중 응답)

(단위 : %)

구 분	계	불친절 하다	의료비가 비싸다	치료 결과가 미흡 하다	진료가 불성실 하다	진료 대기 및 입원 대기 시간	의료 시설이 낙후되 거나 미비	필요 이상 진료	전문 의료 인력 부족	집에서 의료 기관 까지 거리	기타
2 0 2 6 년	100.0	6.8	15.5	16.3	3.4	22.6	10.3	7.1	11.0	7.0	0.0
2 0 2 4 년	100.0	10.8	19.4	13.0	4.2	20.2	11.0	2.5	12.3	6.0	0.7
< 연 령 별 >											
1 5 ~ 2 9 세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3 0 ~ 3 9 세	100.0	0.0	0.0	33.3	0.0	0.0	33.3	0.0	33.3	0.0	0.0
4 0 ~ 4 9 세	100.0	12.0	28.5	0.0	0.0	38.0	21.5	0.0	0.0	0.0	0.0
5 0 ~ 5 9 세	100.0	7.8	9.8	20.7	9.7	16.8	9.2	5.6	14.4	6.0	0.0
6 0 세 이 상	100.0	6.3	20.5	12.6	0.0	28.6	4.2	11.1	6.1	10.7	0.0
6 5 세 이 상	100.0	7.5	18.9	14.5	0.0	28.8	2.8	9.6	5.7	12.2	0.0

2 - 3. 일반인에 대한 신뢰

장성 군민 10명 중 4명은 일반인을 신뢰

· 일반인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 비율 여전히 우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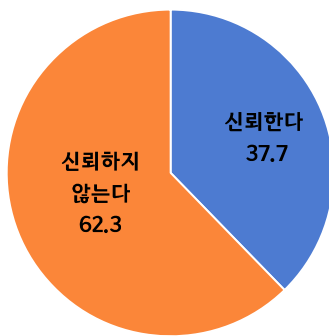
- 일반인을 '신뢰한다'라고 응답한 군민은 37.7%,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군민은 62.3%로 나타나며, 일반인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15.3%로 나타남

· 일반인에 대한 신뢰는 연령별로 다르게 나타남

- 연령별 일반인에 대한 신뢰는 60세 이상, 65세 이상이 모두 44.1%로 가장 높았으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신뢰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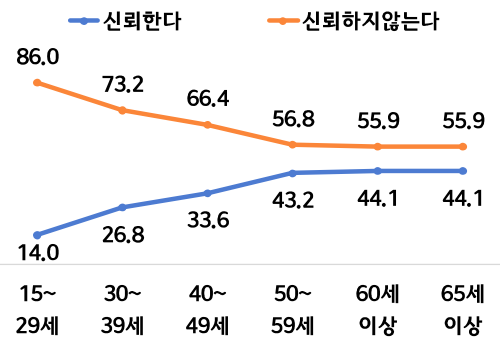
<< 일반인에 대한 신뢰 >>

(단위 : %)



<< 연령별 일반인에 대한 신뢰 >>

(단위 : %)



일반인에 대한 신뢰

(단위 : %)

구 분	계	신뢰하지 않는다			신뢰한다		
		신뢰하지 않는다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신뢰한다	약간 신뢰한다	완전히 신뢰한다
2 0 2 6 년	100.0	62.3	15.3	47.0	37.7	36.1	1.6
2 0 2 4 년	100.0	60.1	13.7	46.4	39.9	37.6	2.2
< 연 령 별 >							
1 5 ~ 2 9 세	100.0	86.0	28.0	58.0	14.0	14.0	0.0
3 0 ~ 3 9 세	100.0	73.2	22.2	51.0	26.8	26.0	0.8
4 0 ~ 4 9 세	100.0	66.4	22.2	44.1	33.6	32.8	0.8
5 0 ~ 5 9 세	100.0	56.8	9.0	47.7	43.2	41.2	2.0
6 0 세 이 상	100.0	55.9	11.8	44.1	44.1	42.0	2.1
6 5 세 이 상	100.0	55.9	11.4	44.4	44.1	42.2	1.9

2 - 4. 사회관계별 소통정도

어려울 때 도움받을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 2024년 대비 증가

· 대다수의 군민이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사람이 있다고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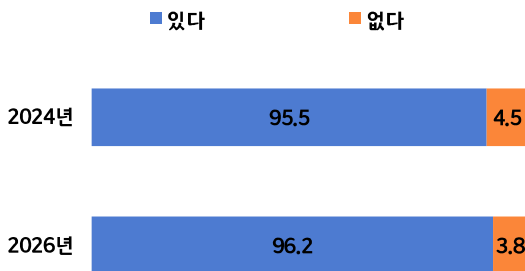
-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응답한 군민은 96.2%로, 2024년(95.5%) 대비 0.7%p 증가함

·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수는 평균 4.2명

-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응답한 '평균 인원'은 4.2명으로 2024년(4.1명) 대비 0.1명 증가함
- 성별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사람이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남자 96.1%, 여자 96.2%로 나타나며, '평균 인원'은 남자 4.3명, 여자 4.2명으로 나타남
-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응답한 '평균 인원'은 40~49세에서 4.9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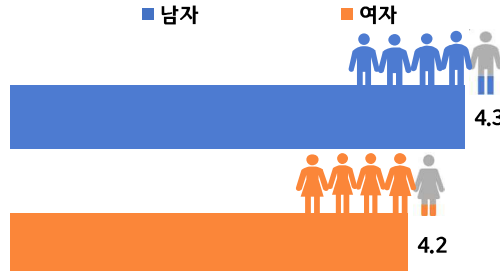
<< 사회관계별 소통정도 >>

(단위 : %)



<< 성별 사회관계별 소통정도(평균 인원) >>

(단위 : 명)



사회관계별 소통정도

(단위 : %, 명)

구 분	계	있다	평균 인원	없다
2026년	100.0	96.2	4.2	3.8
2024년	100.0	95.5	4.1	4.5
< 성 별 >				
남 자	100.0	96.1	4.3	3.9
여 자	100.0	96.2	4.2	3.8
< 연 령 별 >				
15 ~ 29 세	100.0	97.9	4.5	2.1
30 ~ 39 세	100.0	100.0	4.5	0.0
40 ~ 49 세	100.0	98.4	4.9	1.6
50 ~ 59 세	100.0	95.3	4.0	4.7
60 세 이상	100.0	94.9	4.0	5.1
65 세 이상	100.0	95.1	4.0	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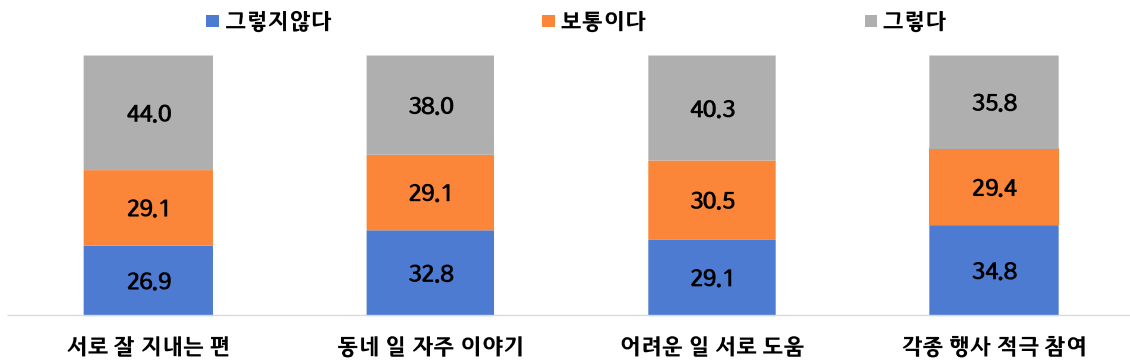
2 - 5. 공동체 의식

군민 10명 중 4명은 서로 서로 잘 알고 지내는 편

- **장성 군민 10명 중 4명은 동네 주민과 잘 알고 지내며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잘 돕는 편**
 - ‘동네 사람들과 서로 서로 잘 알고 지낸다’라고 응답한 군민은 44.0%로 나타났고, ‘보통이다’(29.1%), ‘그렇지 않다’(26.9%)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자주 이야기 한다’라고 응답한 군민은 38.0%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32.8%) ‘보통이다’(29.1%)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잘 돕는다’라고 응답한 군민은 40.3%로 나타났고, ‘보통이다’(30.5%), ‘그렇지 않다’(29.1%) 순으로 높게 나타남

<< 공동체 의식 >>

(단위 : %)



공동체 의식

(단위 : %)

구분	계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렇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서로 서로 잘 알고 지내는 편이다								
2026년	100.0	26.9	9.6	17.2	29.1	44.0	30.4	13.6
2024년	100.0	24.7	7.8	16.9	25.9	49.4	30.2	19.2
(2)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자주 이야기 한다								
2026년	100.0	32.8	12.2	20.6	29.1	38.0	25.6	12.4
2024년	100.0	31.2	11.1	20.1	28.1	40.7	24.6	16.1
(3)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잘 돕는다								
2026년	100.0	29.1	11.2	18.0	30.5	40.3	27.7	12.6
2024년	100.0	29.0	10.5	18.5	27.8	43.3	26.5	16.7
(4) 동네의 각종 행사와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2026년	100.0	34.8	13.6	21.2	29.4	35.8	22.4	13.4
2024년	100.0	34.3	15.3	19.0	27.9	37.8	22.1	15.7

2 - 6. 사회복지서비스 만족도(19세 이상)

장성군의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평균 만족도 2024년 대비 증가

·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복지 만족도는 평균 3.5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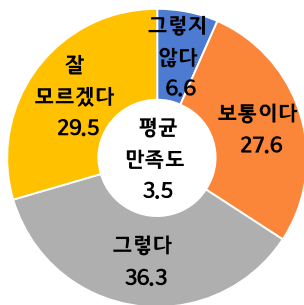
-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복지가 잘 제공됨에 '그렇다'라고 응답한 군민은 36.3%로 나타났고, '잘 모르겠다'(29.5%), '보통이다'(27.6%), '그렇지 않다'(6.6%)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복지가 잘 제공됨에 대한 '평균 만족도'는 3.5점으로 나타남

·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만족도는 평균 3.7점

-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가 잘 제공됨에 '그렇다'라고 응답한 군민은 42.8%로 나타났고, '잘 모르겠다'(27.2%), '보통이다'(25.1%), '그렇지 않다'(4.8%)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가 잘 제공됨에 대한 '평균 만족도'는 3.7점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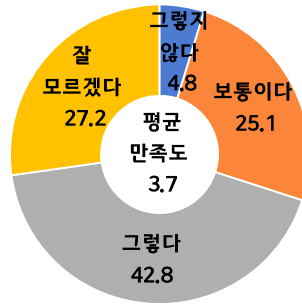
<<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복지 만족도 >>

(단위 : %, 점)



<<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만족도 >>

(단위 : %, 점)



사회복지서비스 만족도(19세 이상)

(단위 : 점, %)

구분	평균 만족도	계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렇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잘 모르겠다
(1)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복지가 잘 제공됨										
2026년	3.5	100.0	6.6	0.9	5.7	27.6	36.3	27.5	8.8	29.5
2024년	3.5	100.0	8.2	1.6	6.6	25.5	37.4	29.4	8.0	28.9
(2)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가 잘 제공됨										
2026년	3.7	100.0	4.8	0.8	4.1	25.1	42.8	30.8	12.0	27.2
2024년	3.6	100.0	6.8	0.6	6.1	28.1	41.9	31.5	10.4	23.3

2 - 7. 가구 월평균 소득

장성 군민 10가구 중 6가구는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 이상

· 장성군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 이상인 가구 2025년 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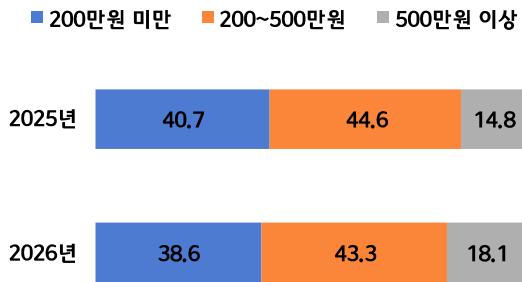
-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가구는 61.4%로 2025년(59.4%) 대비 2.0%p 증가함

· 가구 월평균 소득은 성별, 지역별 차이를 보임

- 성별 가구 월평균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가구 비율은 남자 21.1%, 여자 15.0%로 남자가 여자보다 6.1%p 높게 나타남
- 지역별 가구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가구 비율은 북부권 48.5%, 서부권 43.2%, 광주인근권 36.2%, 중부권 34.3% 순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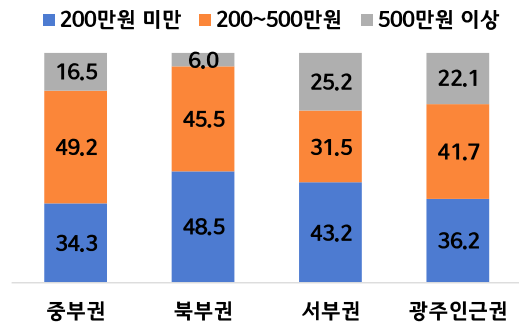
〈〈 가구 월평균 소득 〉〉

(단위 : %)



〈〈 지역별 가구 월평균 소득 〉〉

(단위 : %)



가구 월평균 소득

(단위 : %)

구 분	계	50만원 미만	50만원 ~ 100만원	100만원 ~ 200만원	200만원 ~ 300만원	300만원 ~ 400만원	400만원 ~ 500만원	500만원 ~ 600만원	600만원 ~ 700만원	700만원 ~ 800만원	800만원 이상
2026년	100.0	9.0	15.1	14.5	17.6	15.0	10.7	7.8	2.2	1.4	6.7
2025년	100.0	10.9	15.4	14.4	17.9	16.3	10.4	4.8	4.2	1.7	4.1
2024년	100.0	6.7	18.6	15.2	18.9	11.9	10.5	6.3	3.1	3.5	5.2
〈 지역별 〉											
중부권	100.0	7.2	12.0	15.1	21.3	14.8	13.1	9.2	0.2	1.6	5.5
북부권	100.0	12.9	20.9	14.7	23.6	16.6	5.3	1.4	2.5	0.3	1.8
서부권	100.0	7.1	20.2	15.9	9.2	15.6	6.7	10.3	3.2	0.0	11.7
광주인근권	100.0	13.3	12.3	10.6	14.4	13.5	13.8	5.4	6.3	3.7	6.7
〈 성별 〉											
남자	100.0	6.1	12.2	14.2	17.4	16.6	12.4	8.6	2.5	1.8	8.2
여자	100.0	12.0	18.3	14.8	17.8	13.4	8.9	7.0	2.0	1.0	5.0

2 - 8.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장성 군민 10명 중 7명은 범죄피해에 두렵지 않음

· 밤에 혼자 집에 있을 때 두렵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 2024년 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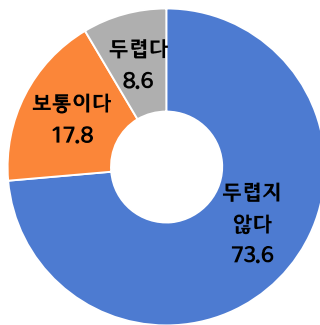
- 밤에 혼자 집에 있을 때 '두렵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73.6%로 2024년(72.6%) 대비 1.0%p 증가함
- 밤에 혼자 집에 있을 때 '두렵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남자가 81.4%, 여자 65.4%로 남자가 여자 대비 16.0%p 높게 나타남

· 밤에 혼자 지역의 골목길을 걸을 때 두렵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 2024년 대비 증가

- 밤에 혼자 지역의 골목길을 걸을 때 '두렵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66.7%로 2024년(64.6%) 대비 2.1%p 증가함
- 밤에 혼자 지역의 골목길을 걸을 때 '두렵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남자가 77.7%로 여자(55.1%) 대비 22.6%p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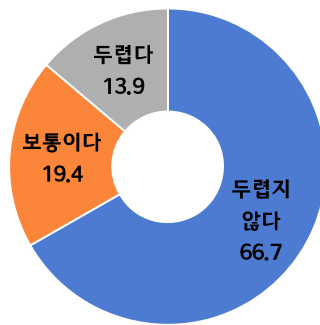
<< 밤에 혼자 집에 있을 때 두려움 >>

(단위 : %)



<< 밤에 골목길을 걸을 때 두려움 >>

(단위 : %)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단위 : %)

구 분	계	두렵지 않다	전혀 두렵지 않다		보통이다	두렵다	두려운 편이다	매우 두렵다
				두렵지 않은 편이다				
(1) 밤에 혼자 집에 있을 때								
2 0 2 6 년	100.0	73.6	39.2	34.4	17.8	8.6	7.8	0.8
2 0 2 4 년	100.0	72.6	35.5	37.1	19.0	8.4	7.5	0.8
〈 성 별 〉								
남 자	100.0	81.4	48.5	32.9	13.7	4.8	4.1	0.7
여 자	100.0	65.4	29.4	36.0	22.0	12.6	11.7	0.9
(2) 밤에 혼자 지역(동네)의 골목길을 걸을 때								
2 0 2 6 년	100.0	66.7	33.3	33.4	19.4	13.9	11.4	2.5
2 0 2 4 년	100.0	64.6	32.4	32.2	23.3	12.2	10.0	2.1
〈 성 별 〉								
남 자	100.0	77.7	45.0	32.7	15.4	6.8	5.3	1.5
여 자	100.0	55.1	21.1	34.0	23.5	21.4	17.8	3.6

2 - 9. 안전환경에 대한 평가

장성 군민 10명 중 4명 이상은 장성군이 안전하다고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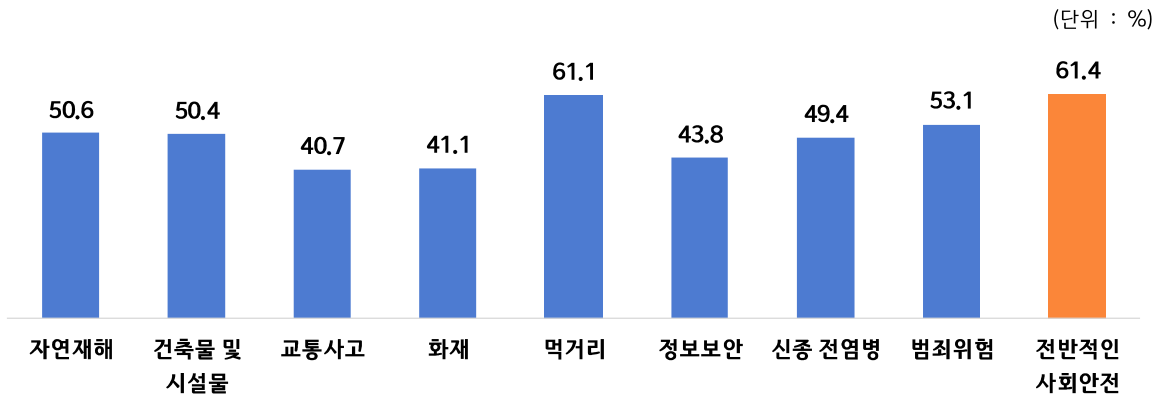
· 장성 군민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항목은 전반적인 사회안전

- 2026년 장성군의 안전환경에 대한 평가에 대해 ‘안전’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전반적인 사회안전(61.4%), 먹거리(61.1%), 범죄위험(53.1%), 자연재해(50.6%)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먹거리(61.1%), 신종 전염병(49.4%), 전반적인 사회안전(61.4%) 항목의 ‘안전’ 응답 비율은 2024년(58.5%, 43.6%, 58.1%) 대비 각각 2.6%p, 5.8%p, 3.3%p 증가함
- 지역별 장성군의 전반적인 사회안전에 대한 평가에 대해 ‘안전’이라고 응답한 지역은 서부권(73.2%), 광주인근권(72.3%), 북부권(65.8%), 중부권(50.4%) 순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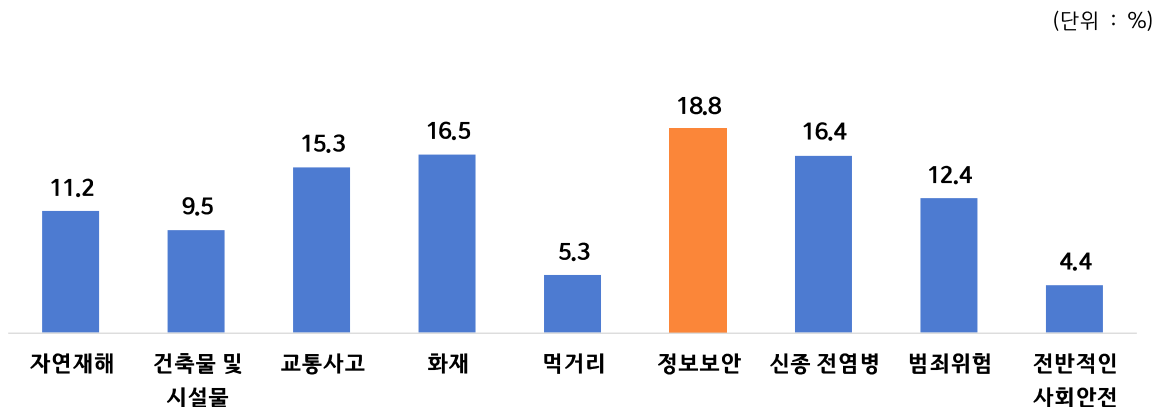
· 장성 군민이 가장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안전환경은 정보보안

- 장성군의 안전환경에 대한 평가에 대해 ‘불안’이라고 응답한 항목은 정보보안(18.8%), 화재(16.5%), 신종 전염병(16.4%) 순으로 높게 나타남
- 교통사고(15.3%), 먹거리(5.3%), 신종 전염병(16.4%), 전반적인 사회안전(4.4%) 항목의 ‘불안’ 응답 비율은 2024년(15.6%, 5.7%, 24.0%, 5.0%) 대비 각각 0.3%p, 0.4%p, 7.6%p, 0.6%p 감소함

<< 안전환경에 대한 평가(안전) >>



<< 안전환경에 대한 평가(불안) >>



안전환경에 대한 평가

(단위 : %)

구 분	계	불안	매우 불안	비교적 불안	보통	안전	비교적 안전	매우 안전
(1) 자연재해(태풍, 지진 등)								
2 0 2 6 년	100.0	11.2	1.4	9.8	38.2	50.6	41.1	9.5
2 0 2 4 년	100.0	6.9	0.5	6.5	36.4	56.7	44.4	12.3
(2) 건축물 및 시설물(주택, 교량)								
2 0 2 6 년	100.0	9.5	0.4	9.1	40.0	50.4	41.4	9.1
2 0 2 4 년	100.0	4.3	0.8	3.5	37.4	58.2	45.7	12.5
(3) 교통사고								
2 0 2 6 년	100.0	15.3	1.7	13.6	44.1	40.7	31.6	9.1
2 0 2 4 년	100.0	15.6	3.1	12.6	37.2	47.1	35.3	11.8
(4) 화재(산불포함)								
2 0 2 6 년	100.0	16.5	3.2	13.3	42.4	41.1	33.0	8.1
2 0 2 4 년	100.0	8.8	1.8	7.0	39.0	52.2	39.8	12.4
(5) 먹거리(불량식품, 식중독 등)								
2 0 2 6 년	100.0	5.3	0.6	4.7	33.6	61.1	44.8	16.3
2 0 2 4 년	100.0	5.7	1.1	4.6	35.8	58.5	45.9	12.6
(6) 정보보안(컴퓨터 바이러스, 기타 해킹 등)								
2 0 2 6 년	100.0	18.8	4.6	14.2	37.4	43.8	35.3	8.5
2 0 2 4 년	100.0	18.7	2.6	16.1	37.4	43.9	33.2	10.7
(7) 신종 전염병(신종 바이러스 등)								
2 0 2 6 년	100.0	16.4	5.1	11.3	34.2	49.4	40.0	9.4
2 0 2 4 년	100.0	24.0	3.9	20.1	32.4	43.6	33.7	10.0
(8) 범죄위험								
2 0 2 6 년	100.0	12.4	2.0	10.3	34.5	53.1	42.2	10.9
2 0 2 4 년	100.0	8.6	0.4	8.2	35.0	56.4	43.6	12.8
(9) 전반적인 사회안전								
2 0 2 6 년	100.0	4.4	0.1	4.2	34.2	61.4	46.7	14.7
2 0 2 4 년	100.0	5.0	0.4	4.6	36.9	58.1	45.7	12.4
〈 지 역 별 〉								
중 부 권	100.0	5.8	0.1	5.6	43.8	50.4	36.8	13.6
북 부 권	100.0	8.8	0.0	8.8	25.4	65.8	45.1	20.8
서 부 권	100.0	0.5	0.0	0.5	26.3	73.2	63.1	10.1
광 주 인 근 권	100.0	2.4	0.5	1.9	25.3	72.3	53.0	19.3

2 - 10. 환경체감도

장성 군민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환경은 녹지 환경

· 장성 군민 10명 중 5명 이상은 환경체감도가 좋다고 생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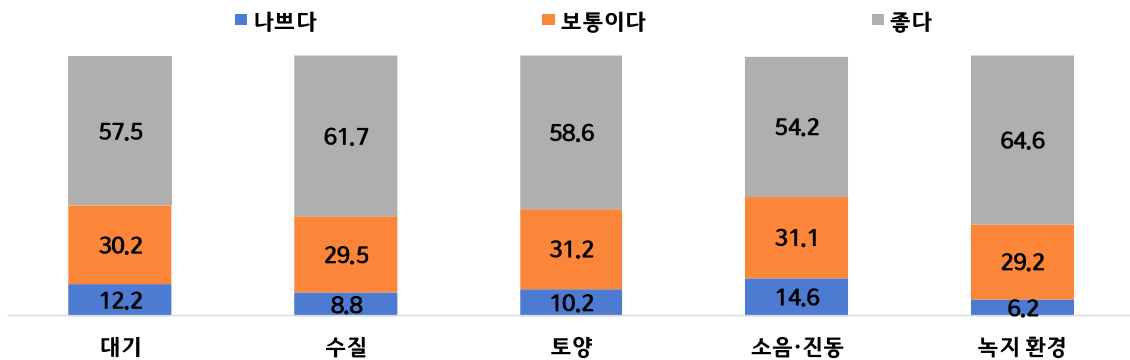
- 장성군 녹지 환경이 '좋다'라고 응답한 군민은 64.6%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녹지 환경 항목을 제외한 환경체감도 항목에 대해 '좋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수질(61.7%), 토양(58.6%), 대기(57.5%), 소음·진동(54.2%) 순으로 높게 나타남

· 2024년 대비 대기, 수질, 토양 항목에서 좋다고 응답한 비율 증가

- 2024년 대비 환경체감도가 '좋다'고 응답한 비율은 소음·진동, 녹지 환경을 제외하고 대기(57.5% 1.1%p, 수질(61.7%) 2.5%p, 토양(58.6%) 4.3%p 증가함

<< 환경체감도 >>

(단위 : %)



환경체감도

(단위 : %)

구분	계	나쁘다			보통이다	좋다	약간 좋다	매우 좋다
			매우 나쁘다	약간 나쁘다				
(1) 대기(미세먼지, 악취, 매연, 오존경보)								
2026년	100.0	12.2	2.4	9.9	30.2	57.5	32.7	24.8
2024년	100.0	12.6	2.1	10.4	31.0	56.4	31.0	25.4
(2) 수질(하천, 지천, 지하수, 음용수)								
2026년	100.0	8.8	3.5	5.3	29.5	61.7	37.5	24.2
2024년	100.0	8.6	2.3	6.3	32.2	59.2	34.0	25.2
(3) 토양(쓰레기, 농약, 폐기물 등으로 인한 오염)								
2026년	100.0	10.2	3.8	6.4	31.2	58.6	37.6	21.1
2024년	100.0	11.7	2.5	9.2	34.0	54.3	31.9	22.4
(4) 소음·진동(자동차, 철도, 건설소음 등)								
2026년	100.0	14.6	3.3	11.4	31.1	54.2	33.6	20.7
2024년	100.0	13.9	1.9	12.0	31.6	54.6	28.4	26.1
(5) 녹지 환경(자연경관 및 공원, 녹지 등)								
2026년	100.0	6.2	0.9	5.3	29.2	64.6	40.8	23.8
2024년	100.0	3.3	0.7	2.6	29.5	67.2	35.3	31.9